

학교 비정규직 노조 업무 복귀...급식 정상화

근속수당 인상 등 핵심쟁점 견해차 커 불씨 여전

이번주내 시·도 교육청과 임단협 재교섭 일정 조율

광주·전남지역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의 총파업이 지난 30일 일 단락되면서 이번 주부터 학교 급식이 정상화된다.

하지만 이번 파업기간에 요구한 핵심사항들이 수용되지 않을 땐 2차·3차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2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학비노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총파업에 들어간 광주와 전남 학비노조는 다음날인 30일 상경투쟁을 끝으로 파업을 잠정 중단한 뒤 업무에 복귀한

다.

파업은 일단 종결됐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근속에 따른 수당 인상 등 문제는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과 학비노조 간 견해 차가 커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학비노조는 파업을 중단하면서 “학생들의 불편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파업을 진행한 뒤 잠정 중단한 것일 뿐 결코 파업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학비노조는 이번 주 안에 협상당사자인 시교육청과 도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재교섭을 위한 일정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교섭이 결렬될 경우 2차 파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파업 전까지 수 차례 임단협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학비노조는 장기근무 가산급 명칭을 근속수당으로 변경한 뒤 상한 없이 근속 1년에 2만원→5만원씩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시교육청 등은 교육부 지침(근속 상한액 최고 35만원)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학비노조는 급식비를 기존 8만원→13만원으로 올려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교육청 등은 다른 광역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내세우며 맞섰다. 또 학비노조는 지난해 기본급 대비 5% 인상을 요구했으나 시교육청 등은 공무원 인상을 3.5%를 일괄 적용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이 학비노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두 차례에 걸친 조정회의 실패에 이어 지난 23일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지난 29일부터 이를 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광주·전남지역 상당수 학교에선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빵·우유로 점심을 대신하는 풍경이 연출됐다.

학비노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현재 정 의기간인데, 결코 파업이 중단된 것이 아니다. 이달 안에 전국 시·도교육청들과 한 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제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해둔 상태”라며 “이들의 대화 여부에 따라 파업 재개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꽃보다 청춘’ 지난 1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나눔광장에서 열린 ‘제6회 청소년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이 공연예술부 참가팀의 댄스공연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청춘의 끼·열정, 주말 금남로를 달구다

청소년 축제 성료...밴드 등 공연예술 17개팀 불꽃경쟁

광주·전남 청소년들을 위한 대표 문화·예술축제인 ‘제6회 청소년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역대 공쿠르 중에서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렸고 각 부문별로 우수한 기량을 지닌 학생들이 대거 지원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

특히 실용음악과 댄스 부문에서 우수한 실력을 갖춘 팀들이 잠재된 재능과 끼를 발산하며 열띤 무대를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광주일보와 (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한 제6회 청소년축제가 지난 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나눔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밴드(2개팀)·실용음악(6개팀)·댄스(9개팀) 등 공연예술 부문 17개팀이 참가, 참가자들간 숨은 끼와 재능을 뽐내며 열띤 경쟁을 벌였다.

심사위원을 맡은 나선 배창희 남부대 교수·정희연 송원대 교수·김영봉 문화소토리엔터 대표 등 3명은 참가자들의 춤·노래 실력 등을 평가해 모두 7개팀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팀은 ▲대상(교육부장관상) 치얼스(댄스)·데인덴데이(실용음악) ▲최우수상(광주시교육감상) KJN 파워댄스(댄스)·페르세포네(밴드) ▲우수상(광주일보사장상) 오영민(실용음악)·슈프림(실용음악)·헤라클레스(댄스) 등이다.

이날 경연대회에선 청소년들의 공연에

술 경연대회 이외에도 진로·진학상담·학교폭력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 대회를 학부모 등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광주대·동신대·호남대 등 전국 대학교 홍보의 장이 열린 대학 홍보부스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 진로·진학상담부 부스에는 진로·심리상담 전문가들이 부스를 찾은 학생들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6회까지 성황리에 개최된 청소년축제는 광주·전남 청소년들을 위한 대표 문화·예술축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2 몰림 14:36
 해질 19:51 몰짐 01:26

본격 장마
 물결과 함께 천둥·번개 치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비 24/29 보성 차차호려저비 22/27
 목포 비 24/28 순천 비 24/29
 여수 차차호려저비 23/28 영광 비 24/28
 나주 비 24/29 진도 차차호려저비 24/29
 완도 차차호려저비 24/29 전주 비 25/27
 구례 비 23/28 군산 비 23/27
 강진 차차호려저비 24/29 남원 비 23/29
 해남 차차호려저비 24/29 흑산도 비 21/26
 장성 비 23/27

◇바다 날씨

| | 오전 | 오후 |
|--------------|--------------|--------------|
| 서해 앞바다 | 남~남서 0.5~1.0 | 남~남서 0.5~1.0 |
| 남부 앞바다 | 남~남서 1.0~2.0 | 남~남서 0.5~1.5 |
| 남해 앞바다 | 남~남서 0.5~1.0 | 남~남서 0.5~1.5 |
| 남해 서부 앞바다(동) | 남~남서 0.5~1.5 | 남~남서 1.5~2.5 |
| 남해 서부 앞바다(서) | 남~남서 1.0~2.0 | 남~남서 1.5~2.5 |

◇생활지수
 식중독 경고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보통

◇물때

| 목포 | 밀물 | 썰물 |
|----|-------|-------|
| | 02:37 | 09:24 |
| | 15:10 | 22:22 |
| 여수 | 밀물 | 썰물 |
| | 10:46 | 04:20 |
| | 23:36 | 17:46 |

◇주간 날씨

| 4(화) | 5(수) | 6(목) | 7(금) | 8(토) | 9(일) | 10(월) |
|-------|-------|-------|-------|-------|-------|-------|
| ☁ | ☁ | ☁ | ☁ | ☁ | ☁ | ☁ |
| 24/30 | 24/29 | 24/30 | 24/30 | 24/31 | 24/31 | 23/31 |

전남 119 하루 평균 286회 출동

상반기 5만1507회 전년비 10.6%↑ ...화재 1758건 34%↑

전남 119가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286회 현장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상반기 화재, 구조, 구급 등 출동 건수는 모두 5만1507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6591회)보다 10.6% 늘었다.

화재는 175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312건)보다 34.0% 늘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 1202건, 전기 221건, 기계 121건 등 순이었다.

화재로 11명이 숨지고 66명이 다쳤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사망 17명, 부상 48명이었다. 구조 활동은 1만210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9057건)보다 23.8% 증가했다.

동물 포획(2320건) 비중이 가장 높으며 교통사고(1933건), 안전조치(13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구급은 3만63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713건)보다 1.8% 늘었다.

하루 평균 210회에 걸쳐 모두 3만7846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원국 전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야외 화재 발생 건수가 크게 늘었고 고온 탓에 야생동물 포획 출동과 폭염 경증환자 발생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시민과 함께한 광주경찰청 10주년

가족 초청·사진전 등 행사다채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0일 광주경찰청 별관 빛고을홀에서 개청(2007년 7월 2일) 1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기간 광주경찰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광주경찰은 10년간 본연의 임무를 다해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다.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사 앞에서는 개청 10주년 기념비 제막식과 기념식수, 희망풍선날리기 행사 등이 열렸으며, 기념식에는 2007년 7월 2일 태어난 청소년들이 초청돼 청사를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다. 광주경찰은 또 개청 10주년을 기념해 경찰 가족 초청의 날, 희망나눔 바자, 사진전 등 다양한 기념행사도 진행했다.

*박진기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113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전남 스마트창작터 아이디어 사업화 창업회원 모집

접수기간 > 2017. 6. 13.(화) ▶ 7. 14.(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로 구체화하여 창업에 도전하실 창업팀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 콘텐츠, ICT 융합 등 지식서비스 전 분야 (예) 앱/웹, SW, 콘텐츠, 융합분야

모집자격 >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14년 1월 기준)

추가혜택 >

- 우수한 사업전문가와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교육 및 멘토링
- 우수한 아이디어 최대 3백만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우수한 시장경험 아이디어 최대 2천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 ※ 창업진흥원 선발

신청방법 >

- 인터넷 접수(K-Startup) 또는 창업넷 접속
- 스마트창작터 교육생 모집 클릭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청하기 클릭
- 담당자 김영민 메니저 061)280-7493 / kym@jcia.or.kr

프로그램 >

- 멘토링, 아이디어 시장검증
- 스마트 창작터
- 심정창업형 온·오프라인 교육
- 우수창업팀 선정 및 사업화운영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전라남도 jcia (제)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